

합격기
(제54회 행시 재경직 합격)

절박함이 준 기회



김 지 현

- 1983년 2월 생
- 과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제 54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I. 머리말

2011년 4월 따뜻한 어느날.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를 앞두고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니... 지난 몇 년간 꿈속에서나 이루어 질 법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고, 첫 골인 지점을 통과한 지금 다음 레이스 준비를 위해 정신이 없지만 소중한 수험생활의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잘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수기를 통해 후배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부끄럽긴 하지만 저의 오랜 수험생활의 경험이 후배님들의 수험생활에 작은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기를 시작합니다.

II. 저의 수험생활

1. 수험생활의 시작 ~ 2009년 2월

PSAT가 도입되면서 당시 1차 시험에 수월하게 합격하기 시작하였고, 아직은 어린 나이에 군대를 미루고 공부를 하여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에서 거듭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는 생각과 운이 없었다는 생각 뿐,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세월을 흘려보내기만 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차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2009년 53회 1차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군대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최

약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9년 1차를 치르자마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군 미필의 남자 수험생이 겹도 없이 졸업을 해버린 상태에서 받은 1차 불합격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그간 4번의 2차 응시경험이 있었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는데 2차 시험장이 아닌 1차에서 수험생활을 끝내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2010년에도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2009년 1차 발표 ~ 2010년 7월

항상 2차 공부는 2차 합격자 발표가 있는 이후에 시작했었습니다. 책을 붙잡고 있어도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붙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그런 생각 없이 일찍 다음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학교나 신림동에는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총무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2시에 독서실 청소를 하고 퇴근하는 일정이었는데 외우고 써보는 연습을 하기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워 많은 기본서들을 통독하며 서브를 정리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2009년 수능을 얼마 앞두고 독서실을 그만둔 후 집 주변의 공공도서관에서 본격적인 암기와 답안지 연습을 시작하였고,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결심하고 본 2010년 1차와 2차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마지막 날 행정학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3. ~ 2011년 오늘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연기한 상태였고, 2차 발표 직후로 입영영장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불합격이라면 바로 군대에 갈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합격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최종발표 이후로 입영연기를 신청한 후 면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010년 11월 꿈에도 그리던 최종합격에 성공했고, 연수원에 입교할 준비를 하며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III. 과목별 공부방법

1. 1차 시험

PSAT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1차 합격에 큰 어려움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차에 대한 자신감이 자만으로 이어져 점수는 점점 하락하였고, 2009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차 시험을 치른 이후 발표가 날 때까지 1차 걱정 없이 2차 준비에 힘쓰기 위해 1차 준비를 일찍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PSAT의 경우 시간 관리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평소에도 시간 관리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등을 풀 때에도 항상 40문제 전부를 한 번에 풀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1) 언어논리

언어논리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언어감각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언

어 지문을 읽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논리학 공부를 통해 논리학 지문을 빠른 시간 내에 풀고 논리학에서 확보된 시간을 긴 지문에 투자한다면 조금 더 수월해 집니다. 항상 시간 내에 40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며 특히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자료해석

자료해석의 경우 PSAT 세 과목 중에서 점수 올리기에 가장 수월합니다. 일단 표를 보는 능력을 기르고 표와 그래프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2002년 정부 예시 문제 같은 쉬웠던 기출문제부터 풀어나가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와 그래프 보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빠른 숫자 계산이 필요한데 강사들의 강의나 책 등을 통해 쉽게 계산하는 요령을 터득한다면 수월합니다.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간 내에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90분 내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한번 강의를 들어보았고, 이후에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한 회당 40문제이므로 기출문제 풀이할 때에는 회당 40문제 x 5 = 200개의 선택지 모두를 확인해 보았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3) 상황판단

상황판단의 경우 과거에는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의 혼합이었지만 최근에는 문제의 유형이 점점 확고해 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과목이므로 언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법조문 문제의 경우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차근차근히 풀어보면 난이도 자체가 그리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별해 내는 능력도 중요하며 이는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퀴즈 문제와 같은 경우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두 시간에 걸쳐 작성한 10장의 답안지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전 과목 공히 답안지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굳이 학원을 다녀야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터디를 안 하더라도 답안지 연습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책을 보고 쓰는 것 보다는 몰라도 두 시간 동안 10장을 채워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며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서도 답안지가 술술 채워질 것입니다.

(1) 경제학

저는 재경직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점수가 가장 저조했었습니다. 기본서를 읽고, 학원가에서 유명한 강사들의 수업도 듣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았으나 실전에서의 점수는 항상 저조한 점수였고, 이는 반복된 불합격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기본서도 많이 보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았으나 정작 답안지 연습을 게을리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IS-LM모형 상에서 이자율과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쉽게 알고 있는데 이를 답안지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해에는 답안지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해 성공의 큰 원인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래프 그리기와 수식 적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서론이나 결론(정책적인 시사점이나 다른 단원·다른 과목들과 연계되는 부분)에 적어줄 만한 내용들은 따로 글을 다듬어 가며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 교과서 문제든 강사들의 학원가 순환문제든 중요해 보이거나 단원 전체를 알아야 하는 문제들은 서브와 함께 모았고, 마지막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문제를 나누어 취급하지는 않았는데 거시에도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부분이나 미시경제학의 '생산요소이론' 등은 미시경제 문제인지 거시경제 문제인지 나누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재정학을 포함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여기고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풀거나 답안지를 쓸 때에도 이게 미시인지 거시인지 구분하지 않고 연관되는 모든 논점에 대해 언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요점에 대해 무게중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논점을 포함시킬

수 있고, 경제학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교과서는 미시경제학의 경우 이준구 교수님(이하 교수님들에 대한 존칭은 생략합니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임봉욱, 이영환, 서승환, 성백남·정갑영 등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과서들을 발췌독 중심으로 읽어보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과서는 김영산·왕규호 미시경제학 교과서였습니다. 책이 두꺼운 단점이 있지만 중간 중간 많은 연습문제들과 예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 안국신 현대거시경제학을 기본으로 정운찬 5판을 보았습니다. 미시와 거시 모두 공부하기 어려운 단원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쓴 각론 책을 발췌독하였고, 마지막에는 답안지에 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놓은 서브만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학원의 경우 황종휴 강사의 수업을 위주로 들었고, 이상근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욱 강사의 자료가 상당히 깔끔하다는 생각에 서브를 제작하면서 많이 활용하였으며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최고답안위주로 참고하였습니다.

(2) 행정법

비법대생으로서 행정법은 처음에 다가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객관식 헌법 준비를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본서

를 읽을 때는 ‘이해’는 물론이고 ‘해석’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학원 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김정일, 정진, 정선균 강사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정선균 강사의 경우 시험장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무기인 법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강사여서 법전과 좀 더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안의 포섭 단계가 아닌 이상 거의 모든 부분은 외운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4~5줄로 미리 단락을 만들어놓았고, 무한히 반복하여 외웠습니다. 특히 학설보다는 법조문과 판례를 많이 외우려고 노력하였고,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할 때마다 사안의 포섭을 상당히 중요시 했습니다. 총론문제가 나오더라도 각론의 논점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깔끔한 경우에는 각론의 논점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각론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중요한 논점이 많이 있으므로 각론을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의 경우 류지태 교과서를 기본으로 보았고, 교수님 사례집의 논리 흐름과 목차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정리는 정선균 강사의 행정법 엑기스를 바탕으로 저한테 맞는 글로 바꾸어 서브를 만들어 보았고, 행사사랑에 제공해주셨던 심민 강사님의 사례문제들을 참고했습니다. 학원 강의의 경우 강사들 대부분 재미있고, 설명도 잘 해주므로 다들 좋았습니다. 다만 각론을 소홀히 하거나 법전을 중요시 하지 않는 강사가 있다면

비추입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의 경우 처음 행정학에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외우는 단계까지는 어렵지 않았으나 막상 답안지를 앞에 두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NPM이 무엇인지 내용은 알겠는데 모의고사 문제에 ‘NPM에 대해 논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엇부터 써야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 답안지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의는 모두 전년도 합격생 강의만 들었으며 각자가 갖고 있는 답안지 쓰는 노하우를 배워가며 답안지가 점점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안지에 인용할 문구들을 찾아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회과학 책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으며 신문을 볼 때에도 행정학 답안지에 쓸 만한 내용은 없나 찾아보며 읽었습니다. 다른 과목 공부를 할 때에도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은 행정학 답안지에 활용하였으며 특히 행정법 공부를 하기 위해 산 법전을 활용하여 정부의 각종 개혁의 근거법률규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자마다 행정학 용어 등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법률 규정에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외웠고,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적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행정학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만 되면 바로 답안지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지를 써가며 고민하는 것이 결국 행정학 공부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답안지 연습을 하는 것이 행정학 점수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은 기본서를 따로 두지 않고 제 서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보았습니다. 새행정학, 한국행정학은 물론이고 학교도서관에 있는 거의 모든 행정학 책들과 신입동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강사들의 자료들을 전부 참고했으며 꼼꼼히 읽은 것은 아니고 서브에 추가할 것들만 찾아서 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포스트 잇 등에 간단하게 정리하여 서브에 추가시켰고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학원 강의의 경우 수험생활 초창기에 합격생들이 진행하는 강의 위주로 답안지 쓰는 스킬을 배웠고, 이론적인 부분을 강의로 도움 받은 것은 강제명 강사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박경효 무료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들어보았는데 괜찮았습니다.

(4) 재정학

재정학의 경우 경제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나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재경직 수험생의 경우 5과목 중에서 재정학을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재정학 공부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도 매년 비슷한 부분이 많고 수학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실전에서 점수는 저조했습니다. 재정학 역시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과 같이 100점 만점의 과목이고, 경제학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므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이번 시험 합격의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매년 비슷하므로 기출문제와 학원모의고사 등은 꼼꼼히 풀어보았고, 경제학 문제들을 접할 때에도 재정학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좋을지 하는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재정학 교과서의 경우 이준구 교과서를 많이 보는데 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시중에 있는 많은 교과서들을 참고하여 서브를 만들었는데 전영섭 · 나성린 교과서가 얇으면서도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둘을 보완재로 삼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내용을 행정학과 연계하여 정리하였고, 국민연금제도 등 현실 정부와 연결되는 내용은 교과서 등의 서술이 빈약할 수 있으므로 따로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학원 강의의 경우 황종휴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김진욱 강사의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5과목 중에서 학원 강의의 비중이 가장 작은 과목이 재정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학의 경우 문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모의고사 문제 등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 통계학

학교 전공이 통계학인 관계로 통계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에 대한 진입장벽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였지만 만약 수학이나 통계학

에 대한 기본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국제경제학을 하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준비하기도 덜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학의 경우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므로 답을 맞히지 못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소위 폭탄문제라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과락을 맞기도 하는데 저 역시 통계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락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국제경제학 선택자 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아쉬운 실수를 하나 하여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제학을 선택한 동료들 보다는 높은 점수였습니다. 국제경제학과 비교하여 평균은 같을지 몰라도 점수의 분포가 분산이 매우 큰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학 교과서는 예전에 나온 현대통계학(빨간 표지)을 많이 봤습니다. 김귀범 서브와 권오홍 고고성통계학을 많이 보는데 권오홍 통계학의 이론편과 문제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통계학을 전략과목으로 삼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학적 부분을 많이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의 경우 국제경제학에 비해 많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3. 3차 면접

2차에 합격을 하고 나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면접스터디를 구성하였고, 약 한 달간 면접에만 매

달려 살았습니다. 취업 준비 등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걱정이 상당했으나 한 달 정도 매일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집단토론과 개별면접 때에도 자신감 있게 임했습니다. 3차의 경우 불합격이라는 잔인한 상황만 없어진다면 오랜 수험생활로 잊게 된 것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IV. 기타 사항

1. 공부장소

수험생활 중반부에는 신림동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넓고 편한 방을 구하진 않았고, 신림9동(대학동) 놀이터 위쪽의 '잠만 자는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가장 썩 방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는 독서실에서 했는데 방에서는 할게 없다보니 아침에 눈뜨면 독서실로 향하게 되었고, 줄리기 전에는 집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놀지 않은 대신 밖에서 노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 이에 따른 책임을 저야 하는데 주변의 유혹거리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고, 마지막 해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 주변의 공공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는데 각자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도 되고, 자극도 되어주면서 공부하게 되었고, 합격을 한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자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공부장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학원 강의 역시 인터넷 강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며 3순환 시기에 모의고사 연습이 걱정된다면 그 시기에만 실험동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스트레스

공부를 오래 하다보면 각종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씩 하나씩 취업에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아직도 수험생인 자신을 보면 초라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의 한 요소였습니다.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은 스트레스를 쌓아 놓지 말자는 것이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술도 마시고 게임도 접했습니다. 다만 절대 다음날에 지장이 갈 정도로 놀지는 않았고, 이런 시간 외에는 공부만 했습니다. 따로 일요일 등 날을 정해서 쉬는 것 없이 스트레

스가 쌓일 때마다 쉬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단위의 계획을 정해서 최소한의 계획은 지켰고,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공부시간에 신경 쓰기보다는 공부하는 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 맺음말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공직생활을 꿈꿔 왔었고, 오랜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이제야 작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합격수기를 읽게 되었고,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이 수기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수기를 쓰겠노라 다짐했지만, 제가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수기들보다 한없이 초라해 보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의 공부 방법이나 수험생활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랜 수험기간동안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다.